

## ‘2만여 시간’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방송미디어 혁신 첫걸음” -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해 총 2만여 시간의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홍범식)와 함께 7일 서울에서 ‘25년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간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인공지능 혁신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학습용 영상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방대한 방송영상 자료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난해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0만 시간이 넘는 방대한 방송 원본 데이터 중 4만여 시간을 엄선해 정제 및 가공을 거쳤다.

이후 철저한 데이터 품질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고품질 영상 2만 3천 113시간, 약 460만 개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영상 자료는 우리 사회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언어, 행동, 소리, 이미지 등 복합적 상황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최적의 원천데이터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구축된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방송콘텐츠 제작 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개발은 물론, 제조·의료·재난·교통 등 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돼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성과공유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구만 교수는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방송사들은 데이터 구축 과정과 주요 성과, 향후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공유했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이 인공지능을 발판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엠비씨(MBC) 충북, 케이티 이엔에이(KT ENA) 등 4개 주관 방송사들과 네이버 클라우드, 엘지 인공지능(LG AI) 연구원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붙임.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안내 전단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함형철 (02-2110-1620)
		담당자	사무관	성창원 (02-2110-1635)
관련 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미디어진흥본부	책임자	본부장	곽기훈 (02-317-6110)
		담당자	팀 장	김지수 (02-317-6197)



#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2026. **5.7.** (목) 15:00 - 18:00  
누리꿈스퀘어 BIZ타워 4층 대회의실

**개회** 참석자 소개 / 축사 및 환영사 / 기념 촬영

**강연** 방송미디어분야 AI-데이터 기술 동향 및 전망 (가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구만 교수

**성과발표** 컨소시엄별 '25년도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 주요 성과'  
**MBC MBC 충북 kt ENA KBS**

**폐회** 관계자 네트워킹

▼ 무료 사전등록

